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

이 인 구 국제거시금융실 부연구위원 (iklee@kiep.go.kr, Tel: 3460-1153)

- | | |
|---------|-----------|
| 1. 미국경제 | 4. 일본경제 |
| 2. 중국경제 | 5. 국제금융시장 |
| 3. EU경제 | 6. 통상환경 |

주요 내용

- ▶ 2008년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경제 침체에 따른 파급효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 4%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EU는 물론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자재에 대한 수급불균형 및 달러화 약세 등의 불안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제적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됨.
- ▶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성장률이 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실물 및 금융부문의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임.
- ▶ 중국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투자확대,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 등에 힘입어 10%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 EU경제는 국제적 신용경색, 유로화 강세, 고유가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침체되면서 지난 2007년보다 낮은 1.8~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일본경제는 세계경기 감속에 따른 수출증가율 둔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07년에 이어 정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국제금융시장이 서브프라임 사태 및 그 전개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 주가 등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 통상환경의 경우 DDA 협상은 협상진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농업 및 NAMA 분야 핵심쟁점에 대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경쟁력 강화 및 자원 확보 등의 수단으로 FTA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당분간 각국의 활발한 FTA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미국경제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성장세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2007년 미국경제는 2.2%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4분기 성장률(0.6%)은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비농업부문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3월 실업률이 2005년 9월 이후 최고치인 5.1%에 달함.
 - 2008년 2월 소매판매 및 자동차판매가 각각 전월대비 0.6%, 1.9% 감소하는 등 개인소비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의 경우 2008년 2월 전월 대비 각각 0.0%, 0.3%, 0.2% 상승함.
- 주택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로 인한 유질처분 담보주택의 매물출회로 주택재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단, 미국 주택시장지수가 2008년 1월의 18에서 3월에는 20으로 다소 반등한 가운데, 기준주택판매 건수가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함.
- 2008년 미국경제는 자본시장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의 감소 및 소비심리 악화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어 성장세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1분기는 mild recession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2분기에는 동 추세가 지속되며, 3분기와 4분기에는 재정 및 금융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8년 전체로는 약 1.0% 전후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달러화 약세 지속에 힘입어 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 연준은 TSLF 및 PDCF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데 이어, 3월 18일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등 경기하강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2. 중국경제

- 중국경제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002년 이후 10%대의 높은 성장률은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1~2월 소매판매 및 고정자산투자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20.2%, 24.3% 증가함.
 - 1~2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8% 증가한 1,970억 달러, 수입은 30.9% 증가한 1,690억 달러로 28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1~2월 중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75.2% 증가한 18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함.
- 2007년 4월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한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2008년 들어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억제가 중국 거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
 - 중국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크게 기인하되, 금년 2월 소비자물가는 8.7% 상승한 반면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중국정부는 농산품의 생산 확대와 가격통제를 병행하는 9가지 정책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식료품의 공급부족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금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인 4.8%선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2008년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및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와 소비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9.4%, 10%로 예상함.
 - 중국의 긴축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농촌 및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내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과잉유동성 및 물가상승 문제를 감안할 때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 확대 및 절상 속도 증가 가능성이 높음.

3. EU경제

■ EU경제는 민간소비 감소 및 투자위축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 되면서 2007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7년 4분기 EU의 민간소비 및 투자는 각각 전기대비 0.1%, 0.7% 증가하는 데 그침.
- 2007년 중 유럽중앙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과 국제적 신용경색 현상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지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008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0%)를 크게 상회하는 3.4%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킴.
- 다만 실업률은 2007년 2월 7.4% → 2007년 8월 7.1% → 2008년 2월 6.7%를 기록하면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EU경제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 유로화 강세, 고유가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년(2.9%)보다 낮은 1.8~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증가율은 물가상승, 주택경기 하락, 복지혜택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2007년의 2.2%에서 2008년에는 1.9%로 하락할 전망이다.
- 투자증가율은 신용경색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세계경기 하락에 따른 수출둔화 등으로 2007년의 5.7%에서 2008년에는 3.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수출증가율은 세계경기 둔화 및 유로화 강세 지속으로 2007년(5.2%)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그동안 고성장세를 보여 왔던 영국과 스페인의 성장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 EU집행위는 금년도 EU27,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0%, 1.6%, 1.7%, 1.7%로 전망함.

4. 일본경제

■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장기간 경기확장 국면을 보였으나, 2007년 중반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기준법 강화에 따른 주택시장 위축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기하강 압력을 받아 왔음.

- 2008년 들어 광공업생산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1분기 기업단기경제단측조사(DI)와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BSI) 지수가 각각 전기대비 8%포인트, 18.1%포인트 감소하는 등 기업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됨.
- 신규주택 착공이 2008년 2월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하면서 8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함.
- 반면 수출의 경우 대미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유럽·중동지역으로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8년 2월 전년동월대비 8.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2008년 일본경제는 해외경기 감속에 따른 수출증가율 둔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정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낮은 임금소득증가율, 석유제품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1.1~1.3%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 주택투자는 전년도 주택착공 감소에 따른 반등으로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증가율은 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수출증가율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전년도보다 하락한 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IMF와 Global Insight는 금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5%, 1.6%로 예측함.

■ 한편 일본은행은 2007년 2월 이후 정책금리를 0.5%로 유지하고 있는바, 올 2008년 내에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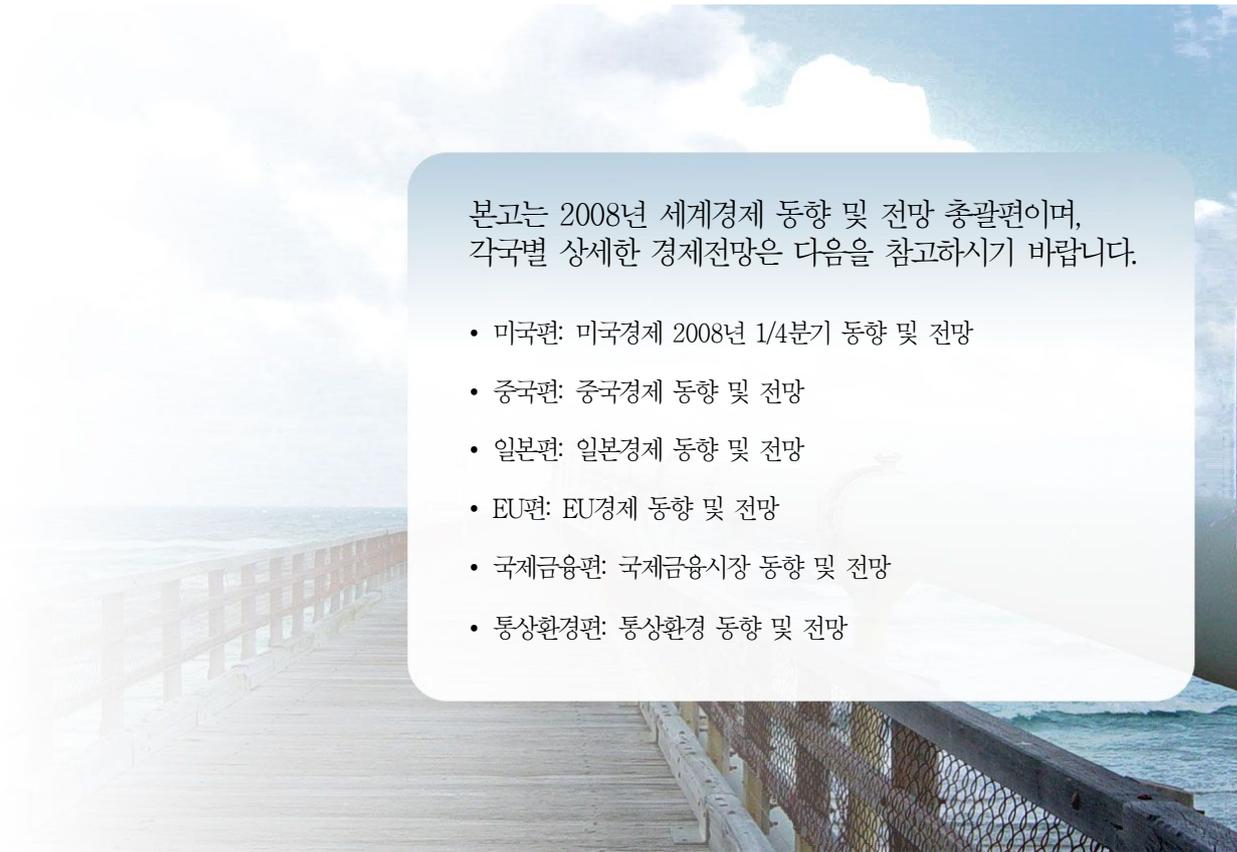
-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일본 내 이코노미스트의 60% 이상이 2009년 2월 이후로 응답한 바 있음.

5. 국제금융시장

- 2008년 들어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연준의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엔화, 위안화에 대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달러화 약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달러화 약세로 인한 미국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기대, 과도한 달러화 하락에 따른 대미 자금유입 재개 가능성 등은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됨.
 - 엔화는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된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증가, 엔캐리 거래 청산 우려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축소가 엔화 가치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원화의 경우 한국 증시 하락,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가능성, 달러 수요의 상대적 우위, 원화강세에 대한 기대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세를 보임.
-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음.
 - 단기금리의 경우 미 연준은 2007년 9월 이후 6차례에 걸쳐 총 3.0%포인트를 인하한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4%의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2008년 1분기 주요국 주가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후 다소 진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주가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 버냉키 의장의 모기지 원금 삭감 발언, 모노라인 부실 완화, 금융감독체제 개혁안 발표 등의 영향으로 하락추세가 진정된 상태이며, 향후 발표될 미국 내 주택관련 지표, 고용 및 소비지표 등 실물변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임.
 - 유로지역 주가는 영국의 Northern Rock에 대한 자금지원, 독일 WestLB의 10억 상각 전망, 프랑스 Societe Generale 금융사고 등의 영향으로 1분기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6. 통상환경

- DDA 협상은 농업과 NAMA를 중심으로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5월 중 농업과 NAMA간 핵심쟁점의 주고받기 성격의 협상인 '부문간협상(horizontal process)'이 개략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2월 배포된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의장초안을 기초로 3~4월에는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을 절충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정초안이 제시되어 5월 중 부문간협상이 전개될 예정임.
 - 부문간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Lamy 총장은 각료급회의를 소집하여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상황과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2008년 상반기 중 DDA 협상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는 각료회의(2008년 5월로 예상) 기간에 signaling conference를 개최하여 주요 30개국의 서비스분야 수정제안(revised offers)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서비스시장 개방의 목표수준과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WTO 차원의 양허 여부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08년 2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199건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이 1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협정이 50건, 개도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이 22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14건임.
 - WTO에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2008년 1분기에 타결되었거나 발효된 협정은 중국·뉴질랜드 FTA, 싱가포르·GCC FTA 등 12건에 이르며, 미국·말레이시아 FTA 등 네 건의 FTA 협상이 신규 개시됨.
 - 한국은 2007년 12월 멕시코와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중국, 일본, GCC 국가와의 FTA 추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KIEP**



본고는 2008년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편이며, 각국별 상세한 경제전망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편: 미국경제 2008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중국편: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 일본편: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
- EU편: EU경제 동향 및 전망
- 국제금융편: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 통상환경편: 통상환경 동향 및 전망